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Vol. 63 (2010 WINTER)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 열린의정구현 |

도민의 참 뜻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경북 의정활동



신년사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 했습니다.



친애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도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고단하고 힘드신 중에도 많은 지원과 큰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우리나라에서도 맹위를 떨쳤고,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수정 논란속에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0년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 세계속의 경제번영, 그리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경북도 예산 5조원 처리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지원과 물가안정 등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사업,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포항·구미 부품소재 전용공단 활성화 등 미래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겪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 원동력의 돌파구를 찾고 있어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도민이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나보다는 지역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결속과 내실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 했습니다.

비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금년에는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올 한해는 발로 뛰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경북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새해 아침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이 상 천

|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

제 237회 정례회

- 경상북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는 2009년 11월 13일 11:00 개회하여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연 67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례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13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10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신규경마장 유치신청에 따른 레저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수용 의원, 백천봉 의원, 정경구 의원)을 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병훈 의원, 장두옥 의원, 남종식 의원)을 마무리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속 운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조례안 8건(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예산안 2건(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의안 1건(도 시가스 보급확대 및 가격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고,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회하였다.
-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예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5조 1,40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3% (5,639억원)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 6,73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1,5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종원 의원, 한혜련 의원, 손진영 의원)을 청취한 후 예산안 2건(2009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3건(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37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 한편, 정례회 폐회 후 도의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이상천 의장과 도의원,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송년회를 갖고 2009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1월 7일 도청강당에서 도지사,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경상북도의회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 이상천 의장은 10월 24일 경상북도청 강당에서 개최한 2009 중소기업대상 및 경북PRIDE상품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11월 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선진 일류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11월 6일 포항포스텍 체육관에서 개최된 세계로봇올림피아드에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11월 30일 포항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경북도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12월 1일 경산체육관에 서 열린 2009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여 경북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함께하는 사랑나눔 등을 실천하자고 당부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12월 23일 제237회 정례회 폐회 후 본회의장 로비에서 도지사, 교육감 등 도내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승년회를 가졌다.



▲ 이상호 부의장은 11월 4일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에서 개최된 성주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김응규 부의장은 12월 24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미래 김천발전방안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및 21세기 미래 녹색성장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9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정책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입법정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시 로봇을 살펴보고 로봇산업의 기술향상과 실생활에 활용 방안에 대한 강구를 촉구하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입원중인 환자들을 위로하고, 의료 진료 시설 개선 및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교육환경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의회와 사전협의 여부 등의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미화훼시험장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통상문화위원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문화재연구원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연구원의 이전경비의 과다불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상주소방서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방장비의 교체 및 신규 장비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심사활동을 펼쳤다.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방유봉 위원장(울진)



박병훈 부위원장(경주)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봉화)



김만용 위원(의성)



김숙향 위원(비례)



김영택 위원(구미)



김지수 위원(성주)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욱 위원(봉화)



윤영식 위원(예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경식 위원(포항)



정경구 위원(안동)



최윤희 위원(비례)

Steering Committee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제237회 정례회에서는

- 11.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반 편성은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전체위원 1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시행하였다.

사무처소관 업무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및 촉구사항이 4건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입법정책팀의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여 입법정책활동을 강화 시키도록 주문하였고, 행정자료실을 찾는 의원들이나 의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

한편, 11. 26일에는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안을 심사하였다. 2010년도 예산은 127억 8천4백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 122억 4천4백만원 보다 4.4%가 늘어난 5억 4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화를 선도하는 선진의정구현에 62억 6천4백만원 행정운영비 65억 2천만원으로 심사 의결하였다

또한, 12. 17일에는 제2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117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2백만원의 4.1%인 4억 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심사 의결하였다. 이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추경안, 조례안 등 심사



이상태 위원장(울릉)



장경식 부위원장(포항)



박진현 위원(영덕)



손덕임 위원(비례)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정경구 위원(안동)



황상조 위원(경산)

개발공사,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경북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경북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3대문화권 문화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등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균형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 이전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도청소재지의 개발예정지구 편입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철저히 세워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경북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수원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불합리한 정관 등 각종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재) 포항지능로봇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금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에 대하여 도정주요시책이 시군, 읍면동 지역에까지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상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세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제237회 정례회에서

● 10개 기관(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6건을 심사 의결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 6개 소관 부서와 경북

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 카 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 용역 등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과 관련 사업예산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화 및 집중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재래시장 특화상품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지 방문을 실시했다.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현지 방문하여 조직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금속소재 부품산업의 기술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에서는 제237회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도시가스보급확대 및 가격조정에 관한 건의안 1건을 원안 의결했다.



200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 2010년도당초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전처리를 통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에 역점



이시하 위원장(문경)



권영만 부위원장(봉화)



김대호 위원(구미)



김수용 위원(영천)



김숙향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송필각 위원(칠곡)



윤창욱 위원(구미)



이우경 위원(경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

●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의 총괄적 검토분석과 함께, 단위 사업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과 대안(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유류비 지원 199백만원, 추경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 및 행사성 경비 지양 촉구)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발전방향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검토,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 수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12개단위사업에 대하여 증액(1,475백만원), 13개 사업은 감액(1,529백만원)을 각각 심사·의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 및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도의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인 조례 제·개정에 있어, 상정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전(의원 발의 3, 집행부 제출안 4)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의 관계, 목적과 취지, 세부사업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재정적 부담 등에 심사기준을 두고,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을 하였다.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실태 파악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0일간 상임위원회소관 8개 기관을

대상으로 '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12건, 건의·촉구 39건, 미담수범 3건, 제도 개선 1건을 각각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서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포항)의 위탁과정 관련 감사 촉구와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건의하였고, 행정지원국은 예산 조기집행 실적 부진 시군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와 더불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의 시군 부담비율 조정을, 3개 의료원은 정책조정관의 역할 정립과 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였다.

특히, 김천의료원의 경영개선 사례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신임 의료원장(김영일) 취임 이후 토요일료를 통한 진료기회 확대, 구내식당 적자 개선, 장례식장 직영, 건강검진센터 시설 개선 및 이동검진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09년 3/4분기 진료 인원과 진료수입이 전년도 동기 대비 21.6%와 17.6%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09년 경영개선 추진 목표 : 3,094백만원 (의료수입 증대 1,687, 인건비 절감 1,075, 경상경비 절감 332)

아울러, 포항의료원은 「6-시그마 시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안동의료원은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 병원(WHO-HPH) 인증」을 미담·수범사례로 들 수 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당초예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경상북도보건환 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백천봉 위원장(구미)



김만용 부위원장(의성)



권인찬 위원(안동)



김영기 위원(청송)



김응규 위원(김천)



김지수 위원(성주)



박순범 위원(칠곡)



전찬길 위원(울진)



채옥주 위원(비례)

주요 감사사항은 도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금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산실로 육성 발전을 위한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도 분청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 기관은 지역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하수도 등 환경행정 서비스의 추진 실태와 독도 영유권 보존사업 등 해양개발 정책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지역교육청의 일괄적인 간부인사 방식 제고 등 6건에 대한 시정 조치와 노르바이러스 검출 등에 따른 지하수 대책 철저, 도교육청 고객만족도 제고 등 17건에 대하여 건의·추구 조치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4,606억 7,600만원의 19.5%인 899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5,506억 3,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5,599억 3,400만원의 16.8%인 940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6,539억 5,5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있어 경상북도 일반회계 총 세입이 전년대비 14.0%가 증가한데 비해 환경해양산림국 세입예산 증가율이 19.5%로 높은 것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았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 등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으며, 세출부문은 44개 단위사업에 대한 정책사업비가 6,465 억원으로 환경해양산림국 전체 예산의 98.9%로 높은 반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4억 5,5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출연금 1억 7,000만원과 산림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자본보조 1억 7,000만원과 수목원 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3,864만원의 22.4%인 2억 5,485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13억 9,349만원이고, 세출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72억 2,976만원의 4.8%인 3억 4,977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75억 7,953만원으로 통상적인 여러 가지 시험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재료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필수적 경상경비인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2조 5,212억 4,700만원의 6.0%인 1,525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2조 6,737억 5,700만원으로 교단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중 노후교수기기 교체 등 15억원중 5억원, 노후시설 개보수 15억원중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불요불급한 예산 배제 차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고,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으로 중복 계상된 구미여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사업비 24억 6,900만원과 기숙형고교시설비 4억 5,000만원 등 29억 1,900만원을 삭감하여 39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6,115억원의 1.2%인 71억 600만원이 감

액 계상된 총 6,043억 9,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7,305억 5,500만원의 1.0%인 75억 8,3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총 7,229억 7,200만원으로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비의 증·감분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과 같은 11억 3,915만원이고,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74억 2,852만원의 5.4%인 4억 101만원이 감액 계상된 총 70억 2,751만원으로 연도중 발생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대한 잉여예산의 감액분과 업무이관에 따른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7,675억 400만원의 2.4%인 657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2조 8,332억 4,100만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므로 기정예산의 불가피한 사업의 추가·변경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증액된 예산 657억 3,700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298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교육환경위원회

이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경상북도내 특구지역 내 식·의약품 제조업소 등이 시행하는 품질안전성 관련 검사수수료를 감면·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정책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혁신업무를 삭제하는 등 본청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중 화랑의 집 명칭과 경상북도 도립 군위공공도서관 이전·신축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

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감이 관할하는 특수지에 대한 등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도시·벽지 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2008년 9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경상북도내 유치원 원아 및 학령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지 대상인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원아 수 증가지역의 유아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증가학생을 수용하는 등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분리 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외에 교명 변경 및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내용과 맞지 않는 단서조항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일제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된 것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는 각급기관의 장(학교장 포함)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의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각급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다.

교육환경위원회 백천봉 위원장은 12월 16일 제4차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치하하고 내년에도 우리 경북도민이 쾌적한 삶의 터전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실상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초밀식 재배 사과원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레저세 감면 동의안 처리



김영만 위원장(군위)



박노욱 부위원장(봉화)



남종식 위원(청송)



박기진 위원(성주)



윤영식 위원(예천)



이종원 위원(성주)



이준호 위원(청도)



정무웅 위원(울릉)



조동만 위원(영양)

용수 농가의 사과원에서는 주변 사과재배농업인과 관련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밀식형 사과원 관리에 대한 활발한 현장토론회도 가졌다.

초밀식 재배 사과원은 지난 2007년도부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10a당 190주 정도 식재하는 일반과원 보다 훨씬 많은 10a당 238~660주 정도 식재하는 방법으로 올해까지 10개 시군에서 19농가에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목에 이른 나무가 없어 성공여부 판단은 이르지만 생산량 증대와 결실연령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 2009. 11. 16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신규경마장 유치 신청에 따른 레저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한국마사회의 신규 경마장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하여(11월 30일까지 접수), 입지에정부지 평가항목중 광역자치단체의 레저세 감면조건이 큰 비중(전체배점 1,000점 중 150점)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경마장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내용은 경마장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경우 경마장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10%의 레저세액을 향후 10년간 5%로 경감한다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신규 경마장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경우 경상북도 말 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2009. 11. 16~11. 25까지 10일간 농수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서부지소, 어업기술센터 등 사업소와 농업기술원 및 산하 구미화훼시험장, 상주감시험장, 영양고추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제23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영주시 부석면 보계2리 김시한 농가 등 도내 초밀식 재배 사과원 5곳을 방문하여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 현지 확인활동을 가졌다. 주요 활동으로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수정별(뒤영별) 사육보급 농기”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의성군 옥산면 정자리 장

사를 실시하였다.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업인단체 중 쌀 전업농 회 원수가 가장 많으나 지원 금액은 적어 향후 활동범위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것과 농협 RPC 매입이 사후 정산되고 있어 도내 농협 RPC 쌀 수취가격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축검사관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순환보직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인사에서 소외 되는 직원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서는 세입예산 관리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였다.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릉도에 추진예정인 홍해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배양장으로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포 어촌계의 건립중인 육상 배양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6~7개소로 확대 운영 검토, 치어를 방류할 때 적정크기의 치어를 방류해 생존율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포항공과대학과의 공동연구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농기계 순회 수리시 부품비 무상지원 단가를 현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 전액 보조로 추진하는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비중 일부를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자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밖에도 대부분 일본 제품인 무인 방제헬기, 점과용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성능이 우수한 국산 농기계를 많이 개발하여 대체해 줄 것, 변동 직불금 지급시 평균가격 산정방법을 전국단위에서 도 평균가격으로 책정할 것,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로 참외 등 다수 작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농정관련 공문서에 농업용어를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개발은 물론 각종 지원시책을 도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도 쌀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벼 재배 농가가 시름 속에 있음을 감안, 쌀 소비 촉진, 쌀 수매가 합리화 등 경상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 11. 30 ~ 12. 1까지 2010년도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농촌선도마을육성사업은 우수한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대시행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고, 퇴비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한 친환경 우수지역 퇴비화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하여 질타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별 사업량의 차이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사업량 배정시 토양검정결과와 지역별 농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규모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산림부산물을 활용하는 산림부산물퇴비화 지원사업 추진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번기 여성농업인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8개소에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계획인 마을공동 급식시설 지원사업의 수요도가 높아 지원마을에 대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 확대 되도록 요구하였다.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유도하기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귀농후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인구유입, 농촌정착의욕고취 차원에서 3년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 심사시 감액조정 심의한 우량 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 등 일부사업을 2010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가운데서도 증액편성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14.02%)보다 2.62%가 적은 규모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경상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한혜련 위원장(영천)



이재철 부위원장(상주)



박병훈 위원(경주)



박순열 위원(청도)



방유봉 위원(울진)



백영학 위원(김천)



안순덕 위원(의성)



장세현 위원(포항)



최윤희 위원(비례)

복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육상, 태권도, 정구, 탁구 등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영광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고된 훈련을 끈기로 극복하고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 선수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출전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이어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

●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10일간)까지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과 문화재연구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집행부 소관 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소관업무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10건과 건의·촉구사항 26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37건을 지적하는 등 활발하고 엄정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전에 조사·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시대에 맞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지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공격적 마케팅,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체육활동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제23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7일)간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관한데 이어 21일에는 경북선수단을 방문하여 임원과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 후 경



을 통한 경북위상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 증진 등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경북관광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 등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공동작업장 마련 등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주문하고, 법령개선 등 정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건의하였다.

또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으나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통상국 예산은 금년도 대비 55.2% 증액된 487억 6천9백만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노사안정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지원, 국제교류 역량강화 등 민선 4기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

을 두고 많은 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투자유치 홈페이지 구축(3천만원)과 관련하여 현재 KOTRA의 Invest Korea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경북의 투자유치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서 KOTRA에 잘 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유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48억 8천8백만원)은 도내의 실업률은 2.1%에서 2.2%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62.7%에서 63.7%에 그치는 등 고용현실은 변화 없음에도 고용보조금은 계속하여 지원하여야 하는지, 2010년도 투자통상국 예산이 금년도 대비 55.2%나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5억 2천6백만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보전(3억)은 오히려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홍보 지원(5천만원)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2월 발의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과 홍보만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통상문화위원회

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제품전시회 및 구매협약,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관광산업육성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육성의 세출예산은 미래 녹색 성장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자원 개발, 고객 중심의 맞춤형 홍보 마케팅, 그리고 2010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33.8%나 증액 편성된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였으며, 특히 서울 KTX역 경북관광홍보관 설치 운영(1억원)은 경북관광홍보관만 하는 것보다는 경북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기업유치 안내소 등 경상북도 종합홍보관으로 확대 운영할 것과 경북순환테마열차 운행(10억원)은 2009년 추경에 5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아직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성과 분석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 그리고 경상북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거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경상북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

한 세계적인 관광자원개발을 주문하였다.

연이어 문화체육관광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은 도민의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삶의 질의 척도라 밝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화 체육관광 예산은 금년도 대비 18.7%나 증액 편성된 만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과 문화체육관광의 중요교실, 문화학교 등 교육사업이 10여 개로 사업내용과 교육대상이 비슷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일연학, 원효학 등 각종 학술자료집과 연구결과물들이 다양하게 발간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집들은 한자 등 전문내용으로 집필 발간되어 일반 도민들은 읽기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도민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발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금년도 679억원에서 내년도 519억원으로 총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금회 추경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금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불용액 등을 정리 하는 예산인 만큼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특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국고보조금 120억 2,900만원의 확보는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하였다.

한편 조례안 발의로는 최근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시설 투자가 저조하여 실업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에 투자한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통상문화위원회가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거나 신규고용을 위해 교육훈련 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 한도액 1인당 월 50만원까지를 100만원까지로 하고, 기업 당 한도액 1억원을 6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기업이전 투자비 지원에 있어 20억원 초과 시 5%를 투자금액의 20%로 확대하였으며, 도내 기존기업이 3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20명 이상의 고용창출 시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 지원조항,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투자기업에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주요시책추진 사업장 방문 및 2009년도 정리추경안 심사



김기홍 위원장(영덕)



김영택 부위원장(구미)



고우현 위원(문경)



박영화 위원(고령)



손진영 위원(영주)



이현준 위원(예천)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병익 위원(군위)

책추진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 도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23건과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1건, 제도개선 1건으로 총27건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예산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경비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고이월을 하여 다음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시이월대상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집행하였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이월 대상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하자검사를 하여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증기간 만료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 사후관리에 소홀하여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중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 하자보증기간 만료시에는 즉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하였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소방학교, 16개 소방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주요시

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하여는 승인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부담금 징수토록 시정조치하고 각종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는 주민과 가장 직결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법이나 시행령이 제·개정되었을 시에는 조례 개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령인 시행령 등이 수회에 걸쳐 일부·전면개정 또는 시행령 명칭 변경 등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상위법령제·개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사유 발생시 즉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주문하고, 법령개선 등 정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민선4기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및 현장소방대응 능력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으나,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였다.

먼저, 건설도시방재국소관으로

전년도 5,934억 9천만원보다 576억 3백만원(9.71%)이 증액된 6,510억 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도 전체 예산 5조 1,405억원의 12.67%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664억 8천3백만원보다 591억 9천5백만원(10.45%)이 증액된 6,256



건설소방위원회

억 7천8백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사업주체가 정책기획관실과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유와, 업무 중복성은 없는지?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는지? 업무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 하였으며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 기공식에 이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혁신도시홍보기념품제작, 경북 드림밸리관련행사운영,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등 일반행사 및 홍보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지? 아울러, 세종시 논란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하여, 2009년도 지방세수 감소, 국비부담사업 증가 등을 이유로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2010년에 지방채 25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지방채 250억원 차입에 대한 지방도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시급성, 지방채 차입의 실익 등에 대한 사유를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어, 소방본부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6억 9천9백만원보다 64억 7천1백만원 (4.03%) 증액된, 1,671억 7천만원으로써, 이는, 도전체 예산액 5조 1,405억원의 3.25%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주요심사 내용은 각종소방청사 이전 신·증축비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투융자 심사 여부와 경주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의 경우, 추경심사시 이전부지 매입비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2010



년 본예산에 산내의용소방대청사신축 설계비 1천4백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경산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의 경우, 이전부지 매입비가 총 32억원으로 '09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하고, 매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본예산에 10억원이 예산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이어, 주요시책추진 사업장을

12. 2 ~ 12. 4까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비교시찰을 통해 체득한 정보와 자료를 의정 및 도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였다.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비심사에서

금회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주민숙원사업, 낙

후지역 균형발전 등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반영하는 만큼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소방본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비인 맞춤형 복지수행 활동비 1억 1천6백만원이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직원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액 예산을 직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요불급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시공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월사업 대부분은 재해예방이나 피해복구 및 지방도 유지보수관련 사업으로 내년 우기전에 조기에 완공과 동절기에 빈번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교육과 철저한 소방장비 점검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



황상조 위원장(경산)



윤창욱 부위원장(구미)



권인찬 위원(안동)



김대호 위원(구미)



김숙향 위원(비례)



김지수 위원(성주)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욱 위원(봉화)



박병훈 위원(경주)



백영화 위원(김천)



손진영 위원(영주)



이현준 위원(예천)



장경식 위원(포항)



전찬걸 위원(울진)



정무웅 위원(울릉)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 지속적인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하였다.

제237회 정례회 기간동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2010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는 교통연수원 시설리모델링 5억 4천만원, 지방도확충 4억원, 축산물유통타운조성 3억 7천만원 등 56건 82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2010

영천 제1회 국제클럽 태권도대회 5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3억원, 청송사과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설치 3억원 등 68건 60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가결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생활관 증축 24억 7천만원, 기숙형 고교설립 4억 5천만원, 노후교수 기기교체 등 10억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 4건 44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는 경상북도는 포항지곡단지내파크골프장조성 1억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으며 도교육청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계각국의 경기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20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경제 회복,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하여 당초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조원을 넘는 재정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지 여부,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낙동강 살리기 등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였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

또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원

금 변경 및 추가확보분에 대하여 최종정리한 것으로 이번 심사에서는 당면 현안사업 및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시점이 연말인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산낭비 및 사업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



2009년 12월 16일(수) 제237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대책 수립 촉구

윤영식 의원(예천)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쌀값 폭락은 농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이미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과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오히려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다시 거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는 풍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만 하여도 경기침체,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수급 조절의 실패 등은 쌀값 폭락을 불러왔고, 그에 따라 농민들은 말 그대로 영농비 조차 건지지 못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경북도연합회 등 각 농민단체와 산지 농민들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09년 8월 2008년산 벼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나 남은 잔량 6만 톤이 2009년산 매입가격의 발목을 잡아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으며, 2009년산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2008년산 잔량 6만 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북도에서는 11월초에 쌀값 하락 종합대책을 통해 벼 재배농가에 모두 452억원을 특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당초 계획한 쌀 공공매입 물량 37만 톤에 이어 추가로 34만 톤을 매입키로 하는 등에 힘입어 10월 하순 이후 벼 가격은 상승하고 쌀 가격은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쌀 소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수출, 해외원조, 대북원조 등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니라 매입 후 시장으로 방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판매연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쌀값 폭락의 우려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쌀농사가 올해처럼만 되고 실효성 없는 쌀 소비 촉진대책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이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수매 확대와 소비 촉진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야 할 것입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체제 유지를 전제로 생산 규모와 생산단가 절감은 물론, 쌀 생산조정제, 쌀 대체작물 경작 유도, 그리고 해외원조, 수출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쌀값 하락으로 생산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쌀 대북 지원을 즉각적으로 재개하고,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는 물론 직불금 인상, 학교급식 등의 소비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DDA 쌀 협상 이후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쌀값과 관계없이 일괄 ha당 59만, 7000원에서 74만 6,000원까지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금의 경우 몇 년 동안 지급단가 인상이 없었던 바, 이는 농약대, 유류대 등 생산비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쌀 목표가격 17만 83원을 정해놓고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적을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농가별 지급액 산정에 근거가 되는 산지 평균쌀값을 시·도별 기준이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일괄 산정함에 따라 쌀값이 강원도나 경기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 농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성 없고 불합리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 지급단가” 그리고 변동형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국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을 전국 기준이 아니라 “시·도별 평균 가격”으로 현실화시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3일(수) 제237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민족의 정체성 위한 올바른 한글의 정책적 사용노력 촉구

이종원 의원(상주)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 민족을 지탱하는 뿌리요, 혼이요, 생명력이며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주창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이 있었기에 우리 한민족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와 찬란한 문화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일상생활이나 공문서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됨은 우리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그때 사대사상에 물든 학자들이 한문은 진서라 하고 한글은 언문이라 하며 천시한 것과 지금의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 하여 영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대한 시련을 당하고 있음이 그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우리 한글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여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한글이 세계 속의 문자로, 우리의 말이 세계어로 뻗어가 뿌리 내림하고 있는 증거이며,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이런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영어사용을 무분별하게 장려하고 있는 듯하여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정책 자료와 일반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홍보자료들은 한글을 알 수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홍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낱말들이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용어 설명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전문용어를 영어발음으로 표기함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각 기관단체들이 내거는 표어나 선전문구들은 물론 국가기관명까지 영문약자를 크게 앞세우는 한심한 작태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NTS(국세청), Olleh KT, KT&G(담배인삼공사), KEPCO(한국전력), Korail(한국철도공사), NH(농협), NPS(국민연금관리공단), NHIC(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편승하여 Pride Gyeongbuk, Hi Seoul, ‘Dynamic 부산’, ‘Your Partner 광주’, ‘Colorful 대구’, ‘Fly 인천’ 등이며 기초자치단체 또한 이에 질세라 덩달아 영문을 앞세워 각 자치단체를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74개 기초단체 등 90개 지자체의 통합선전문구 중에 80% 이상이 영어 단어로 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큰 문제의 심각성

을 내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어를 경시(輕視)하는 행정화(行政化) 내지 국어의 외래어화가 진정 세계화에 따른 우리 국어의 발전방향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홍보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책 홍보에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말과 글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말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말을 올바르게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임을 명심하고,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외국어(영어)로 된 표기를 조속히 한글로 고침과 동시에 전문 용어의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한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3일(수) 제237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축산농가를 위한 경북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 부활 촉구

한혜련 의원(영천)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외국산 축산물 수입개방, 사료비 인
상, 그리고 질병발생 등으로 경북지역 축산업계와 축산농가
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소책을 촉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각종 질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작
금의 현실을 감안해보면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경상
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98년 10월 21일 폐쇄되었
고 이후 영천·경산·청도지역의 농·축산농가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소가 폐쇄된 이후 남부지역 축산농가의 불편은 말할 것
도 없고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습니다. 이에 2007년 6월부터 남부지원팀의 임시운영이 이

루어졌으나 기본검사 외에는 본소로 이첩처리하고, 브루셀라
병 증명서 등은 자체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
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양축농가의 불만만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인원 2명으로는 쏟아지는 민원업무처리에 한계
가 있고, 질병지도 및 예찰업무 수행의 한계로 인한 심도있는
업무처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영천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남부지
원팀 임시운영을 위한 건물이 2010년 5월 10일자로 만기가
되고, 만료 후 대책이 전무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역 3개 시·군(경산·청도·영천)의 주요가축
및 축산시설 현황은 소·돼지·닭 등 주요가축이 도전체의
15%, 본소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이
는 곧 경상북도의 어려운 축산농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 축산농가들은 사료
값 인상 및 해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구
제역 브루셀라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과 각 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극복은 가축질병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속한 현장 중심의 방역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경상북도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부활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경북도 차원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축산농가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부활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면서 남부지역 축산농가 578명의 유치건의서를 김관용 지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3일(수) 제237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노인차별방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및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손진영 의원(영주)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어르신은 우리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어르신의 지식이나 경험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실제로도 노인층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의존적 존재로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차별에 대해서 조사대상노인 51%가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노인차별 해결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1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인식들로 인해 현대의 노인들은 적지 않은 차

별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농촌노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이 농촌, 비수도권과 도시, 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높아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으로, 특히 우리 경북도의 경우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40만 2,469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5.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농촌노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2중, 3중의 노인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차원의 노인차별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마련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북도 노인복지 예산은 2009년의 경우, 도 전체예산대비 7.7%에 달하던 것이 2010년도 예산에서는 7.4%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북도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 노인복지정책 세부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노인 차별 방지에 대한 어떠한 사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별방지정책, 주로 장애인 및 여성 차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마련 및 사회문제인식은 저변화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어 다행스럽습니다만, 노인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너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노인차별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인식과 더불어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堂堂히 행동할 수 있도록 국민의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언론 등의 적극적 참여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학대와 차별에 대한 감시 및 옹호활동, 노인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개입활동, 노인인권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

니다.

정부에서도 노인인권 정책마련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 중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도차원에서도 노인차별금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하여 우리 경북도를 노인 친화적이고 노인이 살기 좋은 도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 지면에 깔려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노인차별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노인차별방지를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 및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선진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업중심 세종시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 등

김수용 의원(영천)



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중심 세종시 개발'에 대한 도의 의견은?

답)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음. 기업중심 세종시 개발에 대한 도의 의견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책이란 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종시와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 경쟁력 강화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질) 한방산업 및 말 관련 산업 특화방안, 신규 경마장 후보지 단일화, 경마장 유치를 위한 도의 지원계획과 레저세 감면에 대한 견해는?

답) 한방산업 및 말 관련 산업 특화방안에 대하여 한방산업의 경우 상주지역은 "한방자원 산업화 단지"를 중심으로 한약재 가공, 한방제품 개발, 생산과 같은 산업화를 특성화하고 영천지역은 "한방산업 진흥원"과 연계하여 연구, 유통, 치료 중심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말 산업의 경우, 육성시책을 더욱 확대해 지역별로 생활승마, 엘리트 승마, 경마, 경주마 생산 등과 같이 특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신규 경마장 유치 후보지 단일화는 한국 마사회에서 제4경마장을 건설키로 하고 시도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23일 "말 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 영천과 상주를 복수의 경북 후보지로 선정, 단일후보지 보다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경마장 유치를 위한 도의 지원계획은 도에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부지제공 등과 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음.

레저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레저세 감면의 경우에도 타시도 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마장이 최종 유치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음.

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의 증가 이유, 저소득 계층의 신용불량 예방, 저소득계층의 지원 확대 정책적 대안?

답) 저소득계층의 신용회복 신청 증가는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위축, 고용감축, 소비감소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의 전반적 위기 등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음. 신용불량 예방을 위해 도 단위 최초로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낙동강 Loan」 제도를 만들어 금년 도비예산(1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35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임. 지원조건은 현재 신청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고, 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근로자로서, 기간은 3년이내 상환(금리 4% 이하)토록 함. 또한 학자금, 긴급생활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사업자의 운영자금 등 지원하고 있음. 저소득계층의 지원 확대 방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기 지원의 필요성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 2013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하여 총 1,500 ~ 2,000명 정도로 신용저하 예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질) 학업 중단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및 학업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답) 학업중단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가치관의 미성숙과 학력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어 학업을 중단함.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향후 대책은 학업중단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학교 안전통합시스템 운영 내실화와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교 부적응 치유 및 학업중단 위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

질) 학교별 학습준비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향후 학습준비물 지원 정책은?

답) 학교별 학습준비물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구모학교는 소규모 학교에 비하여 학교 행사 및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적으로 예산 지출의 과다이며, 대구모학교의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기준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임.

향후 지원 대책으로는 소외계층 학생의 학용품 지원 대상 확대 운영과 장학세부업무추진계획 등 장학자료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을 안내하여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함.





2009년 11월 26일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노인복지지원 및 장애인복지지원 대책 등

백천봉 의원(구미)



질) 노인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한 반면, 도 자체 순수 노인복지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지원 대책은?

답) 최근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노인복지 예산의 70% 차지하고 있어 소득 보충과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음. 노인복지지원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도 노인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대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 의료 산업 등 미래 지향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에 노력하겠음.

질) 장애인 교육분야, 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개선대책 및 장애인 이동권 확대 대책은?

답) 장애인 교육분야 개선 및 대책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및 수화 통역센터를 운영과 여성장애인 특화 교육기관 운영 및 지적 장애인 멘토링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179명 구성 운영 및 23개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순회 수리사업 등 있음. 정보접근 개선으로는 장애인 정보화 센터, 문맹농아인 정보 접근 강화 시범 사업 등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로 장애인 정보화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할 것임.

질) 도청이전이 확정된 2007년 이후부터 도 본청 및 사업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매년 증가한 이유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답) '08, '09년도 리모델링 사업비 증가 사유는 도청사는 1967년도에 건립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현재 상·하

수도 및 난방, 각종설비 등의 누수와 잦은 고장발생과 수전설비 및 분전반, 간선 등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노후 청사와 시설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불가피하게 일부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음.

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준설토 처리 및 오염사고 예방 대책, 식수공급 대책,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추진 시 대처방안 등은?

답) 준설토 보관·방안, 흙탕물 제거 및 오염사고 예방대책은 준설토중 골재는 수급조절 후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고 사토는 공공사업 및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활용 계획이며, 흡입식 준설통법 도입,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등 설치로 수질오염을 예방함.

낙동강 살리기 공사 추진에 따른 식수 공급대책은 공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취수원은 5개소(예천, 상주, 구미3)로써 영향권내 취수장은 집수매거 시설(예천, 상주), 수위확보용 보설치(구미)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책 수립 추진 후 공사 시행함.

대구시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 추진 시 대처방안은 생태계 악영향 초래와 자치단체간 첨예한 갈등으로 실현가능성 희박하며 장기적으로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으로 대구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함.

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획일적이므로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는 없는지?

답) 도정답변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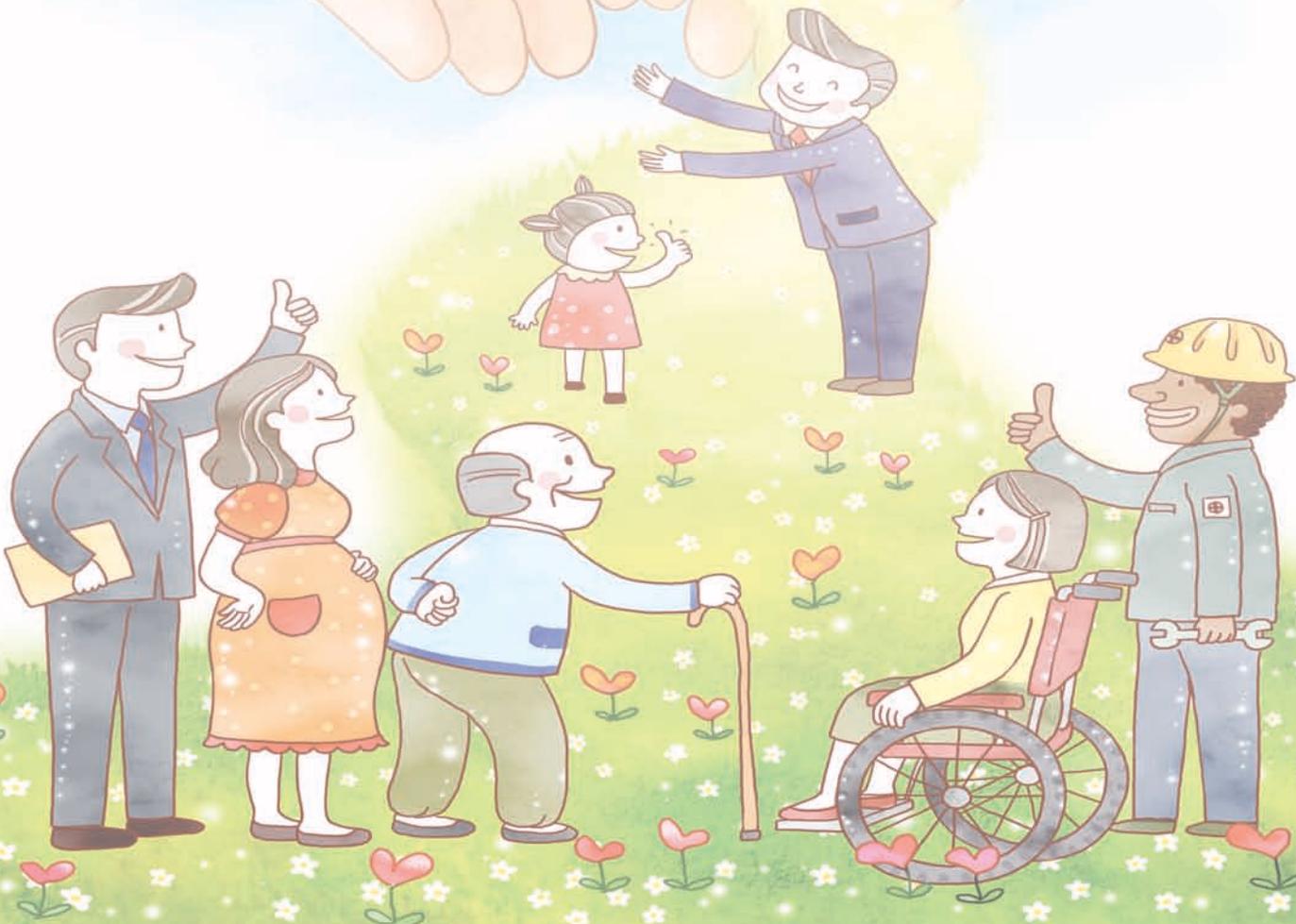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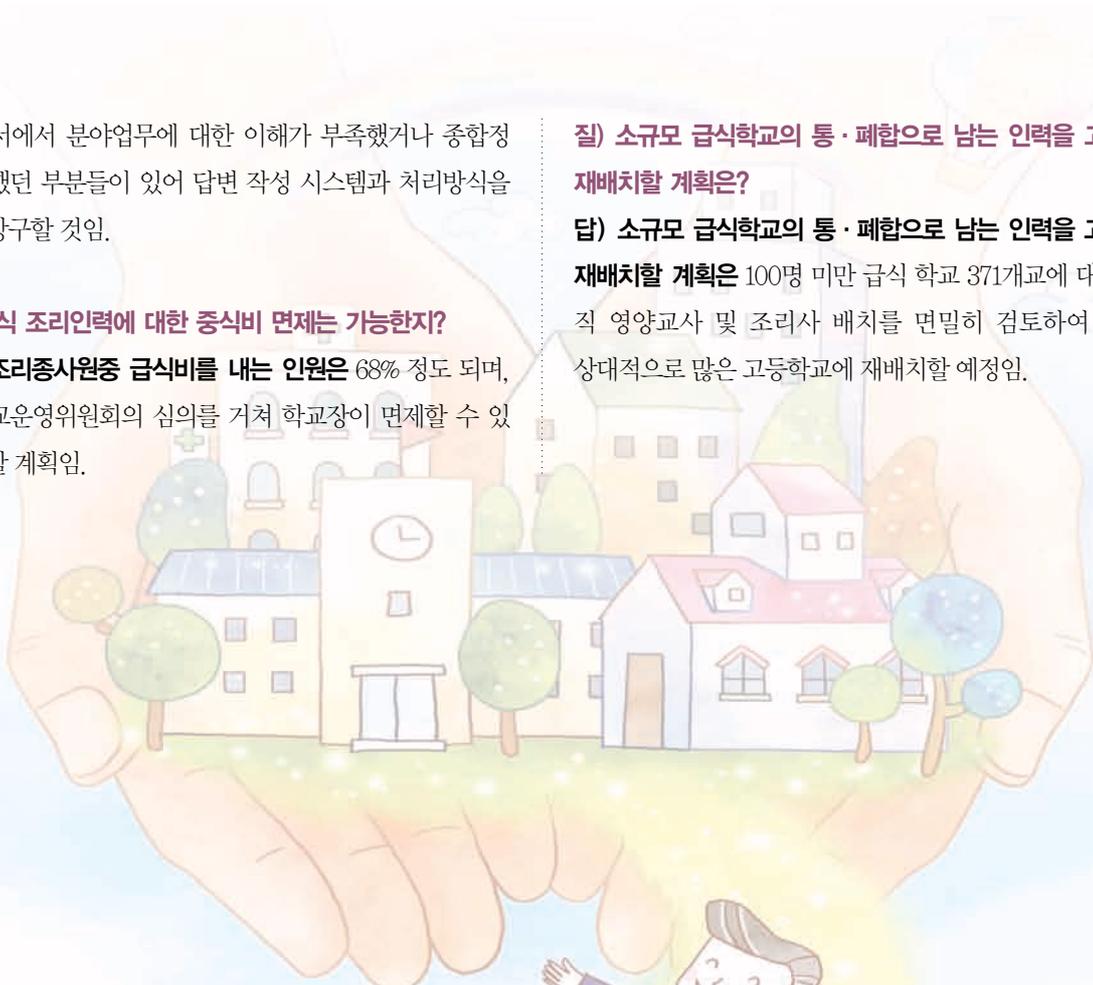
변 주관부서에서 분야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종합정리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어 답변 작성 시스템과 처리방식을 개선토록 강구할 것임.

질) 학교급식 조리인력에 대한 중식비 면제는 가능한지?

답) 현재 조리종사원중 급식비를 내는 인원은 68% 정도 되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면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질) 소규모 급식학교의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을 고등학교에 재배치할 계획은?

답) 소규모 급식학교의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을 고등학교에 재배치할 계획은 100명 미만 급식 학교 371개교에 대하여 정규직 영양교사 및 조리사 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급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학교에 재배치할 예정임.





2009년 11월 26일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아동보호대책, 응급의료기관 부족 및 의료서비스 지원대책 등

정경구 의원(안동)

질)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보호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 기관 확대 방안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대책은?

답)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로 4개 기관(도단위 : 경주, 시군단위 : 안동, 포항, 구미)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방안은 지역별 형평성, 아동인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전국설치 : 43개(광역 19, 기초 24)
아동보호체계 강화대책으로는 '10년부터 전문기관별 임상심리치료사 1명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며, 교육청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음.

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0개 군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대책 및 의료서비스의 구체적인 대책은?

답)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0개군에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06년도부터 의료기관 10개소에 30억원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의학전문의 2명을 포함한 공중보건조사 150명을 보건기관 및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있음.

응급의료 대책으로는 응급의료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7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0개 군에 대해 2010년에는 63억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질) 높은 교통사고율, 낮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도의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상태인데 향후 도의 대책은?

답) 교통복지수준이 낮은 분야가 발생한 원인은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및 국도 연장율이 높고,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도로가 많으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아 교통안전 평가분야인 "보행자사고율"과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율"은 차량 유지비용이 과다하고 이용자가 적어 시군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도입이 저조한 것이 사실임(총44대).

앞으로 지역 교통약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구입 및 유지비가 높아 우리지역의 재정부담이 너무 큰 만큼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함.

질)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을 개량 또는 불량기옥 교체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 및 국가차원의 대책과 별도로 도차원의 석면관리 대책은?

답) 현재 도내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총 134,039동으로 '08년까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용자 4천만원) 9만3천동, 빈집정비(가구당 50~100만원) 1만9천동 완료, 금년에도 주택개량 1,157동, 빈집정비 1,311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함.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위한 국비지원을 위해 농림

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비지원 건의를 통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별 석면관리대책 수립과 연계한 석면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지원 예산 수립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사용실태조사 용역이 수행 중에 있음.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석면관리대책 및 관련법 제정이 완료되면, 자체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에 국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석면으로 인해 주민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석면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석면 자재 사용 제한과 피해예방 방안은?

답) 학교석면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1,619교 중 1,512교 (93.4%)가 석면함유학교로써 석면관리 방안은 체계적인 학교 석면관리를 위해 「학교별 석면 D/B시스템」구축과 석면검출 학교(1,512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발간 배부 등 석면에 대한 홍보 강화할 계획임.





2009년 11월 27일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및 세계태권도대회 경주 유치 등

박병훈 의원(경주)

질)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 사항과 향후 인수계획 및 2015년까지 공사선진화 일정 연기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답) 도에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해 '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포괄적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09년에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경북관광 개발공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인수방법은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모든 자산, 조직 및 인력을 도에서 무상이관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상매입시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포괄적 인수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유상매입은 도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경 정부의 자산평가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이관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도에서는 인수협상에 대비하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질) 2011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주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어 내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차원의 지원방안은?

답)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는 세계 189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태권도연맹(WTF)에서 주관하는 2년 주기의 태권도 최고 권위 대회로 150여 개국 10,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국비 9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을 보수하고 시가지 정비 등을 할 계획임.

대회목표로 하는 150여 개국 10,000여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제 홍보에 진력할 예정이며 경주유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대회준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홍보, 기획, 운영, 집행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질) 정부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농가 벼 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보조하여 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의향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대체 작물의 지원에 대한 견해는?

답) 정부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농가출하 수매가격 차액 보조는 우리 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의 종자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지원사업으로 '97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농가에는 지급 금액이 적어 효과가 낮으며, 모든 농가에 평등하게 보조하던 사업이 우선공급제도 도입에 따라 대량으로 종자를 사용하는 RPC, 위탁영농회사 등에 편중 지급되어 일반농업인과 수혜 불균형 초래하고 있어 2010년에는 쌀 관련 시범사업에 변경 지원함.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대체 작물의 재배 지원 방안은 논콩 재배면적의 연차별 확대, 논콩 재배 생력화단지 확대 지원, 논에 청보리, 호밀 등 사료작물 재배확대, 도시근교에 연근재배 확대, 논에 콩, 옥수수 등 재배시에도 쌀소득 변동 직불금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임.

질)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관광관련업계의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신종플루로 인한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초·중·고 수학여행 취소로 경주 지역 숙박업체, 음식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음.

우리 도는 신종플루 예방과 관광객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관광업체에 방역기기, 손 소독기 우선보급, 수학여행 안전대책 수립 및 적극 홍보로 추가적인 예약 취소 방지, 경북의 상대적 신종플루 안전성 적극 홍보 등의 대책 추진하고 있음.

피해가 심한 경주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9~10월 언론 집중 취재 기획보도와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가을 관광상품 특집 보도 게재로 가족관광객 경북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5일 경주에서 일본인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선덕여왕 특별이벤트 개최 등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 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질) 농기계보유대수가 가장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농기계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답) 농기계안전사고는 농작업시 부주의사고와 안전장비 미부착 등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고의 80%가 경운기 사고임. 농기계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운전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되며, 도로 주행시 안전법규 미숙지와 후방반사경 등 안전장비 미 부착으로 파악되고 있음. 앞으로 도차원의 대책은 농기계안전사고예방 장비부착 여부 일제 점검 후 부착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홍보·안전점검을 강화함.

질) 도차원의 체험마을 정비·통합 및 홍보창구 일원화 방안 및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은?

답) 농어촌체험관광 실태는 도시민과 외국인 관심과 수요증가로 농어촌 체험활동 증가 추세임.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소득화 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무장은 영제도를 적극 활용, 체험프로그램 차별화, 녹색체험선도마을 집중 육성, 홍보활동을 강화함.

질) 사립학교에 과다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규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은?

답) 우리 도 사립학교 현황은 169교(초 3교, 중 75교, 고 91교)에 교원은 총 인원 5,483명(정규교사 4,772명(87%), 기간제 629명(11.5%), 강사 82명(1.5%))임. 정규교사 채용 방안은 기간제교사 과다 채용 법인에 법인 규모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교과목 불일치 교사에 대하여 공·사립학교에 파견근무토록 함.





2009년 11월27일 제2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장두욱 의원(포항)



질)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 등은?

답) 문제점이 드러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의 재검토는 '대모결연사업'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등이 활성화 되면서 점차 행사성으로 치우쳐 '09년 4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방향을 수정 또는 중단토록 시달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판단하여 다문화가족의 만족도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함.

자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2010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미취학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글학습 능력과 이중 언어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로 육성, 도민들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함.

질) 비점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종합대책수립 및 홍보계획은?

답) 바닥 자재 선정 방법은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달리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됨에 따라 관리에 많은 어려움 있음.

그간 우리 도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임하댐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시행계획 수립('08. 9월) 및 탁수오염저감 사업, 구

미 원평지구 주거 밀집지역의 초기 강우 유출수 오염제거 사업, 영천 대평리 인공습지 설치를 통한 초기 강우시 고농도 유출수 제거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유출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 산림,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함.

질)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경북투자펀드 조성,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 등의 공약사항 관리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답)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는 민선 단체장 후보로서 공약한 내용을 당선직후 공약 취지에 맞게 실무적으로 구체화 하고 체계화 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약은 9개 분야, 40개 시책, 109개 단위사업임.

주요 공약사항 추진으로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유비쿼터스 경북구현 등의 사업은 당초 목표는 달성 했으나, 성과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속 추진 계획하고 경북투자펀드 조성, 사이언스빌리지 건설, 경북 사료관 건립 등의 사업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재검토 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분석하여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함.



질)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답)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의 특징과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발생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동을 비롯하여 12개 시군에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지원센터 전문상담인력은 44명(심리상담사 17명, 사회복지사 17명, 청소년지도사 10)이며 상담인력 충원 대책으로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폭력예방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질) 학업중단 및 중단 위기학생 등을 예방·지도하기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망은 부족에 따른 공립 장기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는?

답) 교안전통합시스템망의 확대 운영은 단위학교에 2009년은 71교에 공감상담실 설치, 전문상담인턴교사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0년에는 100교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은 2009년에 4개 지역청(구미, 문경, 포항, 영주) Wee 센터 구축하였고 2010년까지 도내 10개 시 전체 지역교육청에 구축·운영 계획임.

또한 학업부적응 학생에게 장기간 치유·교육할 장기 기숙형 대안학교(Wee 스쿨) 설립은 계획수립 중에 있음.





2009년 11월 27일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쌀값 안정대책과 학교급식개선 방안

남종식 의원(청송)



질) 쌀값안정 대책과 대안 및 우리 농산물 애용에 관한 홍보를 통하여 신토불이, 로컬 푸드의 확실한 개념을 인식시켜 수요 창출로 인한 농업소득 향상방안은 ?

답) 쌀값 안정대책은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주 생산 인프라 확충, 가공공장 신설 및 시설 현대화, 학교급식(도내 초·중·고생 380천명, 월 2회), 군부대, 관공서, 기업체 등 공급 확대와 밥 먹는 食문화 확산 운동 전개, 명절 선물 및 각종행사시 경품으로 쌀 가공제품 제공함.

농산물 홍보를 통한 농업소득 향상 방안으로 On - Off라인을 통한 경북 우수농산물 집중 홍보,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운영 활성화,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 개최, 농식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로컬푸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15개소 정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추진(농식품부 '09. 11월 시행)함.



질) 학교급식에 정부미 및 수입 농산물 사용을 중단할 의향은 ?

답) 학교급식중 정부미 급식은 전체 975개교 중 502개교 (52%)에서 정부미를 사용하고 그 외 473개교에서는 친환경 쌀을 포함한 일반미를 사용함.

수입농산물은 대부분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바나나, 오렌지 등 극히 일부 식품인 약 1% 정도 수입농산물 사용하고 있음.

앞으로는 ·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확대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질) 학교 교실 및 복도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바닥 자재의 선정 방법 및 사업 추진 방향은?

답) 바닥 자재 선정 방법은 해당 학교측의 의견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구성과 경제성, 항균성, 안전성 등을 갖춘 친환경 제품을 비롯하여 적정 자재를 선정하고 있음. 시설사업 추진 방향은 해당 학교측의 요구에 의하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후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사회」 주관 등 자치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4, 한나라)은 10월 21일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개최된 「여성위원회 및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근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앞으로도 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23일 도청강당에서 열린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신도청 이전과 더불어 낙동강 물길 살리기,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육성, 3대문화권 생태 관광기반 조성, 새마을의 세계화, 영일만 신항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경북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를 품안에 끌어 들이는 우리 경북의 밝은 내일을 위해 다같이 새로운 용기를 충전하자고 역설하였다.

10월 29일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사회」를 주관하면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1월 17일 상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북농민사관학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경북농업의 미래를 이끌 선두주자이며,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사는 농업,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24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2009 중소기업대상 및 PRIDE상품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과 '경북 PRIDE (프라이드) 상품' 이 기술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경북기업인들에게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상과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11월 30일에는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개최된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4위를 차지한 경북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여 오늘 성과가 있기까지는 체육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이라면서 더욱 분발해 나가자고 당부와 함께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12월 3일은 경주엑스포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경북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다.

또한 12월 18일에는 포항 제철공단 내 「제철119안전센터」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철강공단 화재시 출동과 예방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제철내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12월 23일에는 도의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2009년 경상북도의회 송년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의정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의 1년동안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외에도 10월 23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1월 2일에는 영천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11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주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상북도 북경사무소 개소식」 참석,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한 양국의 경제발전 도모 강조

이상호 부의장(경주시1, 한나라)은 10월 3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여 경북의 우수상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1월 4일에는 성주군 금산리에서 개최된 「성주일반산업단지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산업단지 기공식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20일 경주문화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9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 및 제40회 한민족통일문제제전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격려했으며, 또한 12월 21일 중국베이징 캠펜스키호텔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북경사무소 개소식 환영만찬」 및 「경상북도 북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와 북경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주문하고 행사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미래 김천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경북의 선도적 역할 강조

김응규 부의장(김천시2, 한나라)은 10월 28일 구미시 낙동강변 체육공원에서 거행된 국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국무총리 등과 환담을 나누고 행사참석자들과 수변 쓰레기 정화 작업을 함께 했다.

그리고 12월 3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 「경북문화원연합회 역사인물학술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역사인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행사관계자 및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12월 4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1회 김천불교사회복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민족 종교로서의 불교의 사회적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또한 12월 24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미래 김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21세기 미래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선도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대회」 참석, 문경의 발전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문경시2, 한나라)은 11월 18일 열린 「점촌3동 주공경로당 및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회관이 항상 웃음이 넘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12월 14일 문경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녹색생활실천 결의대회 및 2009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대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문경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봉화유리요양원 개원식」 참석, 획기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기대하며 관계자 격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봉화군2, 한나라)은 11월 25일 춘양면 서벽리 두내마을에서 열린 「춘양목 산림체험관 개관식」행사에 참석하여 춘양목산림체험관건립을 통해 춘양목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도시민의 교류 및 최상의 산림 휴양을 위한 생태적 공간과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25일 열린 「봉화유리요양원 개원식」행사에 참석하여 「봉화 유리요양원」 개원으로 노인성 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획기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안동농협 경제사업 1천억원 달성 기념식」 참석, 관계자 격려

권인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안동시1, 한나라)은 12월 3일 안동시 일직면 송리에서 개최된 「주평교 준공식」에 참석해 일직면 송리와 원호리 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연결교량이 완성되어 일대 농민들의 농사일과 주민간의 왕래가 편리하게 됐다며 준공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12월 29일에는 풍산읍 노리 고추공판장에서 개최된 「서안동농협 경제사업 1천억원 달성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1천억원 달성에 공이 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 좋은 농산품 브랜드 개발을 주문했다.



「상주~영덕 간 동서6축 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 경북 동해안권 개발박차를 당부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영덕군1, 한나라)은 11월 6일 영덕군청에서 열린 영덕군과 대구한 의대와의 해양성기후에 적합한 약용식물 개발을 위한 「연구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양측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용식물의 상품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12월 18일에는 안동탈춤공원에서 개최된 「상주~영덕간 동서6축 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경북 동해안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5회 구미 3개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구미시 발전을 위한 당부 및 격려

김대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4, 무소속)은 11월 7일 선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구미 3개단체 한마음 체육대회」행사에 참석하여 3개단체 화합을 강조하고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27일에는 선산읍내에서 열린 「산불예방 발대식 및 자연보호 캠페인」행사에 참석하여 산불예방은 자연보호의 근본적인 예방조치라고 말하고 주민모두가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통수식」 참석, 고질적인 급수난과 수질난 해결 축하

김만용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성군1, 한나라)은 11월 16일 의성군 금성면 산운생태공원에서 개최된 「금성도로 확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빌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정치요 행정이라”고 말하고 도비 72억원을 들여 70년 주민숙원 사업인 이번 공사를 현실로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12월 7일에는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서 개최된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통수식」에 참석해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의성읍을 비롯해 5개면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져 고질적인 급수난과 수질난에 시달려오던 지역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었다며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남면 용계리 경로당 준공식」 참석,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기여를 당부

김수용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11월 10일 화남면 용계리에서 열린 「화남면 용계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와 함께 경로당은 마을어르신들의 쉼터로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12월 24일에는 화북면 분회경로당에서 열린 「전동 안마기 전달식」 행사에 참석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에 전동 의자가 전달되어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전동 의자를 이용해 편안하고 활력이 있는 노년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경산지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참석, 노동탄압 중단에 매진 강조

김숙향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무소속)은 12월 19일 경주역에서 열린 「경북민중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2월 9일에는 경산 최경환 국회의원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산지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노조법 개악 중단! 노동탄압 중단을 위해 힘차게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청송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군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

김영기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청송군1, 한나라)은 11월 9일 청송 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대원들의 구급,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등 헌신적인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12월 10일에는 「부동면 119지역대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부동면 119지역대 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이번 청사 준공을 통해 더욱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출범식」 참석, 모금달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 당부

김영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군위군1, 한나라)은 지난 12월 1일 군위군청 현관 앞에서 개최된 군위군 공동모금회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금달성을 위해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사회단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군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28일에는 우보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우보면 청년회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더욱 단합하여 좋은 전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소방서 제47회 소방의 날 행사」 참석, 소방근무조건 개선노력에 다짐

김영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구미시3, 한나라)은 10월 28일 구미시 공단동 강변체육공원에서 열린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에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시연을 관람하면서 수질오염 방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11월 9일에는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소방서에서 열린 제47회 소방의 날 행사에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동료 도의원들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하였다.



「2009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참석, 새로운 국민정신 창조에 선두역할 당부

김종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11월 9일 영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제 47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표창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고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19일에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09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표창 수상자들에게 노고에 대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고, 바르게살기 회원들에게 새로운 국민정신 창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주군장애인협회 송년의 밤」 참석,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당위성 역설

김지수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11월 9일 성주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 47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군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12월 18일 「성주군장애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지역 내 3,300여 등록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보다 빠른 계획의 실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청송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농업전문지식의 함양 및 사고전환 주문

남종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청송군2, 한나라)은 11월 11일 청송군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경제한파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전문지식의 함양 및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12월 4일에 개최된 「청송군 청년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청송군 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성주과채류 시험장 시험연구 성과 보고회」 참석, 관계자 격려

박기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성주군2, 한나라)은 11월 2일 「민주평통성주군협의회(회장 박기진 도의원)·시장군협의회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개최하여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두 자치단체간 정보교환 및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12월 4일에는 경상북도 성주과채류 시험장에서 개최된 「성주과채류 시험장 시험연구 성과 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도 지속적인 연구 및 영농기술의 보급을 통해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봉화군귀농인 양성전문교육 수료식」 참석, 행정적·재정적 지원확대 당부

박노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봉화군1, 한나라)은 11월 4일 「봉화군귀농인 양성전문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봉화군에 귀농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된 「도지사기타기 생활체육배구 봉화군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건전한 생활체육의 파급으로 군민체력 증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황의용소방대발대식」 참석, 소방환경 전문성강화와 재난대응능력 향상 강조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경주시2, 한나라)은 11월 17일 산내면에서 열린 「청룡폭포탄생2주년기념 동창가요제 및 산내면 의곡1리 경로당준공식」에 참석하여 오늘은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주민단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4일 경주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용황의용소방대발대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재난의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봉사해온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지역의 소방환경전문성강화와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년 농업인대학 사전교육」 참석,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발전 당부

박순범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칠곡군2, 한나라)은 12월 22일 「2010년 농업인대학 사전교육」에 참석해 본 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영농수행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농업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영농교육을 추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12월 30일에는 「소상공인 총회」에 참석해 이번 총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자긍심 고취와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기반의 구축 등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청도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참석,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노력 당부

박순열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청도군1, 한나라)은 11월 15일 청도군 다문화가정합동결혼식에 참석하여 다문화가정부부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축하하고, 아울러 참석한 하객들에게 다문화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26일 청도군민회관에서 열린 청도군여성대회 및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미래는 여성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도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발대식」 참석, 출산장려정책에 기여를 당부

박영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고령군1, 한나라)은 10월 23일 도청전정에서 열린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발대식」에 참석하여 가까운 산부인과가 없는 군지역의 임산부들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에도 많은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3일 운수면 봉평리에 신축된 운수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에 참석하여 최신식 시설을 갖춘 만큼 주민들의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6회 희망 영덕 자원봉사대축제」 참석, 자원봉사관계자 격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덕군2, 한나라)은 11월 20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경북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경진대회를 통하여 국가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과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강조하였다. 12월 22일에는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회 희망 영덕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나눔과 베품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후포면 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두역할 당부

방유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12월 4일 「후포면 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포면청년회에서 혼연일체된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14일 「후포1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이번 준공을 계기로 후포주민들이 더욱 단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으며, 12월 18일 국도7호선 준공식에 참석하여 이번 국도7호선 개통을 계기로 지역 내 물류수송체계 개선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지역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하였다.



「2009김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선진일류 김천 만들기에 노력 당부

백영학 통상문화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11월 2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도청이전신도시기본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에 참석하여 신도시계획전반에 관한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12월 22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9김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뉴새마을운동다짐을 통해 선진일류 김천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2009 좋은 학부모 교실」 참석,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 역할 강조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구미시1, 한나라)은 12월 9일 구미형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형솔관’ 개관식에 참석해 “동절기 아동들의 체육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목적강당 개관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12월 21일 금오공대에서 구미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2009 좋은 학부모 교실」에 참석해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청사 「범죄예방위원 임원간담회」 참석,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조

손덕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주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시도의회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의정활동 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11월 12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주최 「범죄예방위원 임원간담회」에 참석하여 범죄예방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범죄예방의 밑거름이 되어 엄격한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영주 소방서 중환자용 구급차 시승식」 참석, 지역민들의 안전담당에 기대

손진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주시2, 한나라)은 12월 11일 영주소방서 앞마당에서 열린 「중환자용 구급차 시승식」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발전에 힘쓰는 지역인사와 함께 직접 중환자용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이번 차량의 도입으로 영주 봉화지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몫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23일 「제23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차별금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노인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삼 인평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식」 참석, 동호인 저변확대 기여에 기대

송필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칠곡군1, 한나라)은 11월 6일 인평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북삼 인평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식」 행사에 참석하며 북삼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개장됨에 따라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결속과 화합을 높일 수 있고, 동호인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2월 18일에는 칠곡문화원에서 열린 「2009년 칠곡문화학교 수료식 및 어르신문화학교 발표회」에 참석하여 문화 활동은 일상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므로 앞으로도 배움의 기쁨을 계속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문하였다.



「신도청시대 경북북부공동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 주민공감대형성 강조

안순덕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11월 24일 신평면 「농촌체험관준공식」에 참석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농촌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기회를 살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12월 11일 영주시청강당에서 열린 「신도청시대 경북북부공동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이번 계기로 경북북부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예천군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참석,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 유가족 위로

윤영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군2, 한나라)은 11월 26일 개최된 「예천군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에 참석하여 한국전쟁 당시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에서 미군 오폭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12월 24일에는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9년도 예천군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난 한해 동안 예천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범시민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결의 대회」 참석, 운동 실천과 지원약속

윤창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2, 한나라)은 11월 20일 구미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범시민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결의 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구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등 명품도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2월 28일에는 구미 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임오동민 화합한마당 송년행사」에 참석. 임오동이 2009년도 최우수 동으로 선정됨을 축하하고 이러한 결과는 주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준 성과라고 역설했다.





「영양 축구인의 밤」 참석,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당부

이상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양군2, 한나라)은 11월 24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영양군운동본부」 출범식 및 「보건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범 군민적인 저출산 극복운동으로 승화시켜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12월 18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영양군축구연합회가 주최한 「축구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구’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 화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회 울릉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유공 표창수상자들 격려

이상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울릉군1, 한나라)은 10월 26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울릉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날 유공 표창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며 울릉군 설치 109주년 군민의 날을 축하하였다. 11월 3일에는 울릉군 최초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서면 태하2리 학포마을에 개관된 「송담실버타운」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노인 환자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였다.



「산북119지역대 청사 준공식」 참석, 더욱 질 높은 소방 서비스제공 주문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문경시1, 한나라)은 11월 6일 가은읍 완장리에서 열린 「우초 민순호 의사 사당 건립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사당 준공식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한말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신 민순호 의사의 넋을 기렸다. 또한 11월 25일에는 산북리 약석리에서 열린 「산북119지역대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이번 청사 준공을 통해 더욱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09 경산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새마을운동 과제 실천당부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경산시1, 한나라)은 11월 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산 시장기 타기 태권도 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경북도민체전에서 경산시의 종합우승에 대하여 태권가족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든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2월 24일에는 경산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9 경산시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표창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하고 한 해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새마을 가족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내년에도 뉴 새마을운동 과제를 적극 실천해 녹색성장도시 건설에 일조 해주길 당부하였다.



「2009상주시자원봉사자대회」 참석,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당부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상주시2, 한나라)은 12월 10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09상주시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사랑실천에 다같이 노력하고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19일 상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상주상백회 창립 제47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향토문화의 보존과 삼강오륜의 덕목을 실천하는 상백회의 봉사정신을 계승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낙동면민회관 준공식」 참석, 면민 화합의 장소가 되기를 당부

이종원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시, 한나라)은 지난 11월 14일 상주시 「낙동면민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면민 화합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12월 11일 상주 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상주 상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향토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오 인권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 농민들 고충 대변 및 건의사항 제시

이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청도군2, 한나라)은 10월 24일 경운대학교에 방문한 “미기로” 유엔 사무총장을 환대하고 UN의 새천년 개발 목표인 “빈곤퇴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경북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10월 22일에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이재오 인권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감천우체국개축 준공 기념식」 참석, 지역민의 우편업무 편익증대 기대

이현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11월 10일 감천우체국에서 열린 「개축 준공 기념식」에 참석하여 28년만에 현대식 건물로 개축된 우체국으로서 지역민들의 우편업무 편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12월 17일에는 예천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예천군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온 회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국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제17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 장애인 지도자의 역할 증대 당부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11월 7일 포항 포스텍체육관에서 ‘인간을 꿈꾸는 로봇, 로봇을 꿈꾸는 인간’이란 주제로 열린 「2009 세계로봇올림픽피아드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 마인드를 함양하고 로봇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로봇 축제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월 3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유공 표창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장애인 지도자들에게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지원 제고를 위해 장애인 지도자의 역할 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 강조

장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한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16일 동료의원 들과 함께 「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한 해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년에도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북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2009 포항시자원봉사박람회」 참석, 자원봉사의 활성화 촉진 희망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10월 31일 해도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9 포항시자원봉사박람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11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특히 도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집행부 간부 및 동료의원들에게 주장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참석, 녹색성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 역설

장병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2, 한나라)은 11월 16일 의성 금성면 「금성도로 확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도로 및 교량의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2일에는 낙동강 제22공구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 구간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서로 힘을 모아 녹색성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역설하였다.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식」 참석, 문화공간조성에 지속적 노력 다짐

장세현 통상문화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11월 29일 흥해읍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흥해읍민들이 더욱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12월 22일 환호해맞이공원에 자리한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이번 미술관 개관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과 지역문화창달에 큰 힘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화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울진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 참석, 육상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약속

전찬걸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울진군1, 한나라)은 12월 11일 「재구 북면 면민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신·구회장단의 노고에 감사와 환담을 통해 지역면민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12월 17일 울진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육상선수로 선발된 9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를 격려하고 울진지역 초등학교 육상발전을 위한 운영위원, 체육회에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상주~안동~영덕 동서6축 고속도로 기공식」 참석, 경제효율·관광활성화 기여 강조

정경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안동시2, 한나라)은 12월 18일 안동시 탈춤공원에서 개최된 「상주~안동~영덕 동서6축 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경북도청 이전지인 안동으로의 접근성 제고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물류비용 절감과 경북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2월 18일에는 가톨릭상지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사은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유공수상자들 및 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관련 정책 및 예산반영에 더욱더 힘을 쏟아 지역의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양군 운동본부 출범식」 참석, 관계자들 격려

조동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영양군1, 한나라)은 10월 27일 「영양읍 동부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심터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11월 24일 영양군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영양군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아기소리가 끊이지 않는 젊고 힘 있는 영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한국청소년문화연합 포항시지회 창립식」 참석, 청소년 건전 육성 당부

채옥주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11일 포스코 홍보관에서 개최된 「(사)한국청소년문화연합 포항시지회 창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미래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빠르게 자라도록 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몇몇 사람의 관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해 모든 시민들이 애정을 가질 때 가능하다며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서 12월 11일에는 포항교육청과 포항YMCA가 주최한 신뢰와 사랑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트러스트 스쿨」 선포식에 참석해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정희 대통령 92회 탄생기념행사」 참석, 박前대통령의 위업을 바르게 알리기를 강조

최윤희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14일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92회 탄생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새마을운동 등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바르게 알리자고 강조하였다. 12월 16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동남권신국제공항 발전전략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남권신국제공항건설과 향후 구미권 발전전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2009사회적기업가대회」 참석, 사회적 기업가들의 노고를 격려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11월 17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09여성대회 및 제12회한마음다짐대회」에 참석하여 희망찬 영천을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힘쓰는 것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여성이 되자고 강조하였다. 11월 27일 수성관광호텔에서 가진 「2009사회적기업가대회」에 참석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일념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산 조영의용소방대발대식」에 참석, 화재진압 교육과 훈련을 당부

황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산시2, 한나라)은 10월 28일 자인면 계정숲 열린문화마당 일원에서 개최된 「2009 녹색생활실천 바르게살기 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밝은 미래조성을 위해 회원들의 일체감 및 자긍심 제고로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의식개혁운동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월 8일 경산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산 조영의용소방대 및 와촌·남산 여성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당부하였다.



영남일보 | 10. 20

대구시의회 이어 경북도의회 동남권 신공항 유치 힘 보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 유치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의회는 19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의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8월30일까지 활동한다.

김영기 유치특위위원장(청송)은 "동남권 신국제 공항은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영남 지역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입지는 영남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칫 후보지를 둘러싼 영남지역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이

기주의보다는 영남이 되는 곳에 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도 항 유치 특별위원회 및 지역 8개 구·군·시·자치구의 3층 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필요성과 유치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돈규 시의회 의원은 "광역·기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이같은 자리에서 시의회의 기초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인건 광역의회를 만들어 동남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일간대구경북 | 10. 20



도의원 연수회

특징과 손재권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김명근기자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9일 오후 경주 대명콘도에서 2009년도 경북도의회의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서 조 박 교수(동국대 석좌교수)는 '21세기 키워드 창의적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대구신문 | 10. 21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도의회 통상문화위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20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을 참관하고 경북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본부를 방문, 출전선수수와 임원들에게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임원과 체육회

관계자들에게는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북 선수단을 찾은 한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통상문화위원들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경북도의 명예와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임원과 선수단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경북매일신문 | 10. 29



이상천 전국 시도시장단체협의회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시도시장단체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채 상환이자 정부가 부담해야”

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지방채 상환이자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애초 3년 관련 정치자결 신설에 따른 재정 풍도 정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매일신문 | 10. 29

도의회 시매몰지 침출수 환경 조사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28일부터 3일간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여부와 오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라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해 매몰한 경주(4곳)·문경(1)·영천(8)·경산(6) 지역 19곳에 대한 침출수 차단조치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 매몰지 주변 시료를 채취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오염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주변 오염이 확인



필 경우 방역 및 오염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병구기자



경북일보 | 10. 30

초밀식 재배 사과원 실태 파악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도내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초밀식재배 사과원 실태 확인에 나섰다. 위원회는 29일 영주시 부석면 보계리와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의 초밀식재배 사과원을 찾아 생육상황 점검과 함께 재배에 대한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파악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초밀식재배 사과원은 10a당 190주정도 심는 일반과원보다 훨씬 많은 10a당 238~ 660주정도 심는 사과원으로서 올해까지 도내 10개 시군 19농가가 조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성목이 이른 나무가 없어 성공여부 판단은 이르지만 생산량 증대와 결실연령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에 수립된

경북일보 | 11. 5

오늘, 지방의회 제도 개선 정책포럼

각계 전문가·시민단체 참여 협력방안 모색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의원)가 주최하고 전국 시도의회와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5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실현 주체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유·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원,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도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이 지방자치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연구회 등을 통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영

영남일보 | 11. 7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은 해묵은 숙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 연구회(회장 김성조)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가 잇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포럼에서 지난 9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과 이상천 경북도

지자체도 발전을 위한 독립 문제가 중요

참석자들은 지방의원 인사권을 지방자치발전의 의장이 행사한다. "사무직원은 지방(廳)에 따라 그 지방정한다"고 규정하고 직원 임명권을 집행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사실상 견제받아야 한다고 있다. 이번 대법원이

이런 인사 시스템에선 진정한 지방자치 꽃피워 질 수 없다. 이는 권력 배분을 통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처가 자체 채용에 의해 직원을 임용(任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는 것이 맞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지방권력을 집행부에 종속(從屬)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전국 지방의회 직원 임용을 총괄하는 곳을 신설하거나, 지방의회직 공무원 직제를 만들어

접 임명하는 것과 같다. 상당히 모순되고 위헌적인 요소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輔佐)하면서도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승진과 근무 평정에 대한 권한을 집행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어떤 지자체에선 의회 직원이 의원들의 동향을 미리 집행부에 알려줘 뒷장을 밟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민일보 | 11. 13

경북일보 | 11. 13

이상천 의장 "정책대안 제시 역점"

오늘 도의회 정례회

"지역·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300만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겠다"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여는 경북도의회의 이상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도 좋지만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심의·의결은 의

회, 즉 도민들의 몫으로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며 "특히 선심성, 중구난방식의 예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의 재정규모가 5조원을 넘는 등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체 발행 등 건전재정 문제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하지만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등의 예산은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의장은 "임기 중 도청이전을 실현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며 "도청이전이란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의장으로서는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회기중에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동료의원들의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열정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민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복기자

반짝이는 정책아이디어 모았다

수정책사례집 발간

사례 20건 선정 게재

특히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관련 모범사례 3건도 함께 수록,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신경제 범시민 운동 전개활동과 대규모 자연정화활동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사례를 소개하여 친환경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책자를 통해 의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와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 사례 등을 습득할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우리도 실정에 맞는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입법정책역량 제고 및 의회기능 강화로 의정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대구일보 | 11. 16

한혜련 경북도의원 호행 장려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지역 저소득층의 부모 부양을 지원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한혜련 경북도의원(한나라당·영천·사진)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를 모시는 저소득·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한 '경북도 호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37회 정례회에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 장애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장려 사업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센터·법인·단체의 업무 수행 지원 △ 호행 우수자 표창 등 호문화 증진 방안을 담고 있다. 한혜련 의원은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해 고령사회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호행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 11. 19

대구 소재 73개 기관·단체 먼저 도청 이전지로

도의회, 도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도청 이전에 따른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 187개소에 대한 이전 계획이 미흡한 것 아니냐"

경북도의회 박진현(영매) 의원이 17일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던진 질문이다. 박 의원은 이어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의 이전 의향과 의향사항 조사 등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도청 이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가 18일 소사실에서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도청 이전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관은 도의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도의회가 행사하는 양대 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지방경찰청·경북세정청 등이 들어간다. 농림·새마을금고·대한저축은행 등도 포함됐다. 도청이전추진단은 또 "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와 대구·경북을 통합 관할하는 유관기관·단체는 자율적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현재의 도청사 부지 처리 방안도 거론됐다.

도청 신청사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도청사 부지 처리 방안

대구시 매각 등 3갈래로 추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가 18일 도청주요교육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경북일보 | 11. 23

"지역교육청 주요 자리 동시 인사 문제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 237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와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역교육청 동시 인사 단행, 무대공연작품 시 지역 관중 지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환경평가·안동·문경·의성·예천 교육청

△백천봉(구미)의원- 지역교육청 인사와 관련, 지역교육청·학무과장·관리과장 인사이동이 동일한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신입 교육장의 업무피와 등 지역 교육현안사항 등이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도교육청 인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김지수(성주)의원- 신촌불부예발을 위해서 학생들의 손세척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각종 전염병 예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면 할례순환이 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포항지농로봇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시 로봇들을 살펴보고 있다.

가해 혈액 속에 면역성분이 생겨 계절성 독감 등을 막아준다.

■물상문화위-문화체육

△범유봉(울진)의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관련, 구미, 포항, 경주 등 시지역에만 편중 지원했다. 농촌지역인 근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

△안소덕(의성)의원- 의성

법령장 이음과 관련, 장애인 법령팀의 이용 여부를 두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도가 나서 해결책을

찾아 달라.

■행정정보건축지위-김천의료원

△권영만(봉화)의원- 약재구입비 미납금 해결과 함께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정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

■문경교육(구미)의원- 정례식

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도민을 위해 정례용품 단가를 저렴하게 해 달라. 양승복기자 yangsb@knbk.co.kr

동국일보 | 11. 18

"도청이전 따른 유관기관 이전 미흡"

경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업무진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상태(경주) 부의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와 도청이전신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위원회 중에는 다 위원회에 중첩되는 경우가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정)는 17일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 행정보건의료, 교육환경, 농수산, 문화체육,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열어 지방부 각 실·국별로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신문 | 11. 30

“경북관광개발공, 道서 인수해야”

박병훈 경북도의원 도정 질문

경북도의회 제 237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 도정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관광업 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 추진 중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이하 관광개발공사)의 인수에 대해



박병훈씨, 강두욱씨, 남궁식씨

일간대구경북 | 12. 3

서민복지 시책 개선 ‘앞장’

경북도·도의회, 복지관련 조례 5건 상정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민생안정대책 등 서민복지 시책의 개선을 위해 복지관련 조례 5건을 도의회 장기와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 상정했다. 송필갑 경북도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조례 2007년 6월에 제정된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중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참전유공자중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경북도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로 잊혀져 가는 효행과 효 문화를 경북도가 앞장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김대호 경북도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로 심각한 해악이 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2009년부터 지

원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로 규정된 조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사업은 한시적 제도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조례제정 당시와 달리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상정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집행부가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민자 8,67

경도일보 | 12. 14

대구신문 | 12. 7

5조1,405억원 규, 도의회, 道·교육청 내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예결특위를 개회, 도의회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경북도 및 도 교육청 2010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한다.

7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예산심사를 시작으로 경북도 분청 심원국별 심사를 11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위원 전체 토론 후 의견을 하여 16일 경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을 최종확정한다.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조 1천405억원으로 전년도 4조 5천769억원에 비해 5천639억원(12.3%)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4조4천51억원으로

전년도 7천133억원에 비해(3.1%)이 늘었다.

경북도의 기금 중 증수 기금 등 16종은 2009년발원이 증가한 5천921억원

현재액이며, 통합관리기

년발보다 20억원이 증가

규모이다.

경북도교육청의 총예산

전738억원으로 전년도

전 738억원으로 전년도

경북일보 | 12. 1

경북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제 237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는 30일 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각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금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산부인과 부족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영일만항 유치 지원금 늘려야”

강구항 주차장 확대·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도마 위’

□교육환경위원회-환경해양산림국

△채옥주(비례)의원-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금 예산 10억원은 너무 적다. 영일만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활동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증액이 요구된다.

△김만용(의성)의원-강구항 해양경관 조성사업비가 3년째 특정 군에 배정된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계이선 중 유독 아이나비와 협약하는 이유는.

□기획경제위원회-공보관실 △장경식(포항)의원-공보관은 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데도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도정홍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박진현(영덕)의원-도정 주요시책이 시군 지역에게까지 충분히 홍보되도록 지역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

□행정보건의료위원회-보건

□농수산위원회-농수산국

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영호남 교류사업의 예산 확보 당부

도립예술단 활동 등 사업 미흡 지적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어제 교육청에 이어 11일에도 경북도 소관 관광산업국 등 5개 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했다.

김지수 의원(성주)은 작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확인하고, 관광인프라구축, 골목 없는 고부가까지 사업자원은 경북이 많

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했다.

또한 영호남 교류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사업이 실행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를 당부했다.

박병훈 의원(경주)는 도립예술단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

나 예산에 비해 공연 수는 물론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악단원 15명 증원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듯이 영의 정서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도 부진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인원을 증원한 사유와 예산을 대폭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질의했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전 구체적 사업계획과 필요한 이유를 따졌으며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을 요구 했다.

김대호 의원(구미)은 영·호남 관광교류전과 관련해 예산은 많지 않으나 양도의 화합과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 보다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경북관광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관광사업에 현재 1억3,000만원이 투자되고있는데, 사업이 행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하고, 여타의 행사성 사업에 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구 기자





일간대구경북 | 12. 1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정책자문회의
 일시: 2009년 12월 17일(목) 15:00 장소: 경주실론호텔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이상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북도의회의장)은 17일 오후 7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정책자문회의를 주관하고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경북매일신문 | 12. 24

■ 인/터/뷰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을 한해 소외계층에 아낌없이 지원
 다양한 특위 구성 지역현안에 대처**

-을 한해 의정활동을 되돌아 본다면, △경북도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성화 의정 활동을 전 도정을 견제와 예 대안을 제시 인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 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펼쳤는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나 경북생태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등을 의원발의나 상임위원회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나 경제 및 4대 강 살리기 지원·독도수호·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 도정과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내년에도 민생 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경북 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온 정성을 쏟겠다. /서연기자

경북일보 | 12. 24



함께 해주시던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가기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송년회 2009. 12. 23

경도일보 | 12. 29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도적 장치·정책 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지난 1년동안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조례안 제·개정 등을 통해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전개 했다. 3차례에 걸친 상임위 소관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8 회계년도 결산승인에 있어, 예·결산의 총괄적 검토 분석과 함께, 단위사업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계획적이고실 효성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과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발전방향을 유도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 수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1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증액, 13개 사업은 감액을 각각 심사·의결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와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키도 했다.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가 추진

해야 할 시책이나 사업을 원활하게 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올해도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관계, 목적과 취지, 세부사업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재정적 부담 등에 심사기준을 두고, 위원회 발의 5건, 집행부 제출안 1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결결 12건과 4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했다.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실태 파악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0일간 상임위원회소관 8개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에 대해 각각 채택했다. 이종구 기자

경북도의회는 23일 제23회 정대 송년회를 가졌다.

이상천 의

경북도의회 송년회

"올해 도민의 작은 소리 듣고 도민과 함께하며 도정 발로 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정위원회의 로비에서 열린 송년회 이상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통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뜻을 펼쳤다"고 한해를 회고 이 의장은 "도민의 작은 크게 듣고 활발한 상임위원회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거룩한 한반도의 역사를 품고 동해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나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자치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